

〈터기 행진곡〉에서 읽는 문명의 화합

힘으로 세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란 항상 궁색하고 어이없기 마련이다. 그 사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역사의 종말》이니 《문명의 충돌》이니 하는, 엄밀한 학술이론이라기보다 주문생산품의 냄새가 짙은 관제이론이 대표적이다. 그중 후자인 ‘문명 충돌론’은 이데올로기 종언 이후의 세계를 종교에 따라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의 세 권역으로 나누고 열거한 순서대로 우열을 매긴 후 최고로 우등한 기독교 문명권이 다른 문명권들을 힘으로 복종시켜야 하며 이들 간의 무력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생동안 백악관에 세계지배 논리를 제공해온, 아마도 사무엘 헌팅턴의 최후의 작품이 될 《문명의 충돌》은 세 문명간의 화합과 조화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글_최윤구

고전파 작곡자들이 터키에 관심 갖는 이유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의 3악장 터키 행진곡〉 만큼은 아니지만 베토벤 역시 나름대로 사랑받는 〈터키 행진곡〉을 남겼다. 오페라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피〉의 무대가 터키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고전파 작곡가들이 터키와 그 음악에 관심을 쏟았던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속해 있던 합스부르크의 동쪽 머리 오스트리아와 오늘날의 터키인 오스만 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역대로 중앙아시아의 패자였던 투르크족이 지배세력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비잔틴 제국의 동부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흥기, 곧 비잔틴 제국을 위협할 정도의 강자로 떠올랐다. ‘벼락’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예지드 1세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 국경까지 진출해 1396년 교황 보니파스의 지원을 받아 십자군을 결성한 헝가리 국왕 지기스문트의 군대를 불가리아의 니코폴리스에서 궤멸시켰다. 이 전투의 승리로 유럽으로 향한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은 두 차례에 걸쳐 좌절을 겪게 된다.

첫 번째 시련은 몽골의 초원으로부터 닥쳐왔다. 몽골 최후의 범세계적인 정복자 티무르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차례로 휩쓴 뒤 거센 태풍처럼 아나톨리아를 덮쳐온 것이다. 앙카라에서 벌어진 격전의 결과 ‘벼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던 오스만의 바예지드 1세는 아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고, 적진에서 죽고 말았다. 오스만 제국은 붕괴의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서방은 이 강력한 적이 되살아날 때까지 방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곧 안정을 되찾은 오스만 제국은 마침내 메호메드 2세의 치세에 이르러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기에 이른다. 유럽은 전사(戰史)에 길이 남을 이 엄청난 규모의 포위섬멸전을 방해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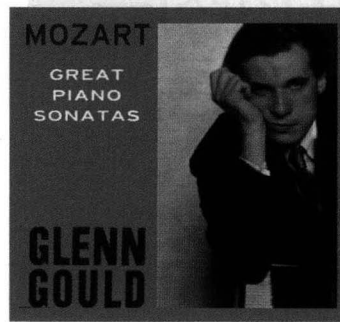
오스만 제국의 서방 진출을 가로막은 두 번째 인물은 자신의 치세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카를 5세였다. 에스파냐, 시칠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카를 5세의 제국은 그의 조신들이 세계제국을 운운할 정도로 유럽의 강자로 군림했다. 카를 5세와 제국권력의 고양에 놀라 북부 독일의 군주들과 프랑스의 앙리 2세, 그리고 합스부르크가 30년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수호했던 카톨릭의 수장 교황까지도 일종의 반합스부르크 동맹에 가담했고, 프랑스 국왕 프랑소와 1세는 술탄이만과 손을 잡고 니스를 공략하기까지 했다.

유럽 기독교 세력의 분열상을 목도한 오스만 제국의 ‘화려한’ 술탄 술탄이만은 기독교 세계의 거대한 동쪽 보루였던 헝가리에 난입, 1526년 모하치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1529년 9월 27

추천음반

Piano Sonatas No.8,10,11,14,16 Etc/ Glenn Gould1 Disc

뮤지션 Wolfgang Amadeus Mozart |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 연주자 Glenn Gould | 악기 Piano | 제작사 Sony | 레이블 Sony Classical



서구문화가 소개된 곳에서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피아노 소나타 11번 K.331의 3악장은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멜로디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음악은 더 이상 모차르트가 의도했을 진기함과는 거리가 먼, 익숙한 클래식 명곡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연주하는 이가 글렌 굴드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모차르트는 요절하기는커녕 너무 늦게 죽었다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이 괴짜 천재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터키행진곡〉은 다시 태어난다.

오늘날 보수적인 빈의 청중들이 가장 신뢰하는 피아니스트는 일본계인 미츠코 우치다다. 다시 한번 헨팅턴에게 서양음악 문화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명인 모차르트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가 일본인이라는 사태를 어찌 설명할 것이냐고 묻고 싶지만, 일단 나중으로 미루자. 우치다의 〈터키행진곡〉은 3분 34초. 그러나 굴드의 〈터키 행진곡〉은 4분이 넘는다. 터키의 병사들을 느릿느릿 산보시키는 굴드 때문에 멜로디는 거의 해체될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정평 있는 그의 아티클레이션은 모차르트의 악보가 형해화 되기 일보 직전에서 고전파의 품격을 지켜낸다. 그의 찬미자들에게는 제 의 성부라 찬양되는 저 유명한 흥얼거림을 배경으로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은 느릿느릿, 자신들에게 전의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면서 천천히 걸어 사라져간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곡에서 새롭게 길어낼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한글**

일, 술탄만이 친정하는 오스만군은 빈을 포위하기에 이른다. 유럽은 그저 숨을 죽이고 이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술탄만은 포위를 풀고 물러났지만, 이 사건이 서방에 준 충격은 대단했다. 유럽은 오스만 제국과의 빈번한 군사적 충돌과 잇따른 패배로 말미암아 이슬람 세력의 효율적인 정치체제와 군사 시스템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스만 제국은 1683년 두 번째로 빈을 포위하지만 스러져 가는 제국의 최후발악이었던 이 무모한 군사적 시도 이후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의 평화공존을 원하게 된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 각국에 대사관을 설립하고, 이슬람 예술을 유럽에 소개했다.

모차르트의 〈K.331〉가 탄생한 배경

오스만 제국의 두 번째 빈 포위공격이 있었던 1683년으로부터 꼭 백년 후에 모차르트는 자신의 피아노 소나타들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의 하나인 〈K.331〉을 작곡한다. 이 곡의 3악장은 무적의 오스만 군의 신뢰를 낳은 주역인 술탄의 근위사단 예니체리 군악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대규모의 관악기와 타악기가 동원되는 것이 특징인 예니체리의 군악대는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글루크, 하이든, 베토벤 같은 빈을 무대로 하는 고전 음악가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현악단 구성 자체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심벌즈는 지금도 서양인들의 오케스트라에서 빈을 두 번씩 포위 공격했었던 예니체리 군악대 때의 그것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뽐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모차르트 당대에 심벌즈에서 초기 구성원의 상당수가 아이 때부터 알라신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로 양성된 동유럽 출신의 '백인'들로 충원되었던 예니체리의 위용을 떠올리는 유럽인들은 거의 없었다. 노쇠한 오스만 제국은 유럽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했고, 지리상의 발견이 있기 전까지 유럽인들에게 유일한 이국문화였던 이슬람 문화는 유럽인들의 이국 취미를 자극하는 정도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유럽인들에게 있어 이국적인 것은 곧 오스만 터키적인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뭐든지 진기한 것을 '터키적'이라고 부르는 말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세계를 위협하는 이교도 군대의 흥측한 행진곡은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은 서양 음악의 슈퍼스타들의 작품목록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히트 넘버가 되었다.

헨팅턴과 그의 추종자들이 떠벌이는 것과는 반대로 문화란 이처럼 이종교배를 하게 마련이다. 상대방을 인정치 않고 제 잘났다며 전쟁을 벌이지 말고 단지 그들이 평화롭게 몸을 쉬을 시간만 주어진다 말이다. **한글**

최운구 님은 〈월간 코드〉〈조이클래식〉〈월간 오디오〉〈What hi-fi〉 등에 음반평론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출강하고 있다.